



1부, 2부, 3부 예배 SERVICES

인도: 박영관 목사 (Rev. Young Gwan Park)

- 입례찬송 38장
Opening Hymn 예수 우리 왕이여
Jesus, We Enthroned You
-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기도
Prayer

찬양
Anthem

“주는 나의 목자”
My Lord Is Like a Shepherd by Lani Smith

4, 5부 예배 SERVICES

4부 영어예배

설교 김정호 목사
Sermon Rev. Chongho Kim

Exodus 3:1-12

“Living a Life Worthy of God’s Calling”

5부 예배

설교 최찬영 목사
Sermon Rev. Chanyoung Choi

1부 윤관호 권사
2부 양정임 권사
3부 김선옥 권사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환영 인사 및 광고
Welcome & Announcement

- 영광송 & 봉헌
Doxology & Offering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 (Exodus) 3:1-12

설교
Sermon

소명받아 산다

김정호 목사
Rev. Chongho Kim

- 결단 찬송
Hymn of Response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Come, we that love the Lord

- 축도
Benediction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at the mark

01. 예배 안내 Welcome to FUMC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교회 안내와 교제의 시간이 새가족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02. 예배 확대 Reopening 안내

지난 9월 5일 부터 현장예배는 8시 / 9:30분 / 11시 / 1시(EM) / 2:30분(청년)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변동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 현장예배가 확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간격이 유지된 자리에 자율적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예배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https://www.fumc.net/web/live>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03. 입교자를 위한 새가족 교육

3차모임: 오늘 17일(주일) 3부 예배 후 / 컨퍼런스룸

*입교식: 10월 24일 (주일) 3부 예배

04. 2021년 온라인 구역회 안내 2021 Charge Conference

구역회는 11월 6일(토요일) 저녁 6시에 Zoom을 통해 열립니다.

참여 대상: 각 행정위원장, 교구장, 속장, 남여선교회장, 사역위원장과 팀장.

*Zoom ID는 추후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05. 교육부 쉼마 Festival

할로윈 행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로 세우고자 쉼마 말씀 축제를 엽니다.

일시: 10월 31일(주일) 오후 4시 ~ 6시 30분

장소: 교회 체육관 및 주차장 / 대상: 유치부, 유초등부

문의: 이동준 목사 및 목회실

06. 중보기도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위치: 사무실 2층 중보기도센터

*중보기도함은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7. 기쁨의 언덕으로 10월호 Pleasant Hill

기쁨의 언덕으로 10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구입하실 수 있고 예배실 입구에 위치한 큐티데스크에서 픽업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개인별 큐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08. 온라인 헌금 안내 Online Giving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 www.fumc.net/web/offering 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헌금(Offering)을 누르고 바뀐 화면에서 중앙 사진을 클릭하면 헌금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의: 목회실 718-939-8599

*메모란에 한글이름 또는 헌금 바코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09. 서로돕기 프로젝트의 확대 Blessing Store

비전센터에서 필요한 물품 뿐만 아니라 다시 음식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오후4시 (비전센터 1층)

*작은 물건들을 비전센터에 기부해 주시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목회실

10. 해밀턴-매디슨 하우스 간병보호자 서비스 프로그램 Hamilton-Madison House

뉴욕시에 거주하는 간병보호자와 간병수혜자 및 장애인 분들을 돕기위해 매주 복지사가 교회에 상주하게 됩니다.

운영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4시 (10월 8일부터)

장소: 친교실 옆 의료실 문의: 박줄리아 사회복지사 / Cell: 646-630-0551

11. 후러싱제일교회 교적 프로그램 Online Church Directory

"<https://member.fumc.net>"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한어회중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

과거를 은혜와 축복의 믿음으로 돌이켜 보면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뉴욕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비전을 함께 세우기 원합니다. 뉴욕 이민 1번지 교회로서 헌신과 희생을 뿌리내렸으니 '넷가에 심은 나무'(시편 1편)가 되는 교회가 되어 잎이 늘 푸르고 철 따라 열매 맺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5년간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대한 감사는 물론, 미래를 위한 거룩한 꿈을 다시 꾸는 자랑스러운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희년목회(선교) 실현하는 교회 (누가복음 4:18-19)”

예배안내 Upcoming Worship Services

<10월 설교 안내> “다시 믿음으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믿음의 성숙을 생각합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 깊어지고 무르익어가는 신앙의 가을이 되길 소망합니다.

10/3	약속 믿고 산다	창세기 15:1-6
10/10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마태복음 22:37-39
10/17	소명받아 산다	출애굽기 3:1-12
10/24	혼자가 아닙니다	시편 139:1-14
10/31	하나님 사랑하며 살립니다	신명기 6:1-9

<10월 주일예배 기도 및 헌금 담당> Sunday Service prayer

날짜	1부 기도	2부 기도	3부 기도
10/17	윤관호 권사	양정임 권사	김선옥 권사
10/24	박용기 장로	김광남 권사	전기홍 권사
10/31	김인숙A 권사	박윤정 집사	양학모 권사
헌금담당	김명은 권사	배성자 권사	김현정 집사

<수요일예배 안내> Wednesday Service

* 당분간 수요일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림



● 가나안 주차장
Roosevelt Ave. 선상
144가와 147가 사이

● 실드 주차장
38th Ave. 선상
Parsons Blvd.와 147가 사이

● 글리슨 주차장
149 Pl. 와 38 Ave. 사이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예배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 (영어)	1:00 pm 본당
::5부	2:30 pm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MAIN CTR
-------	------	----------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온라인
::수요일	가정예배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1 pm
유아부(만3세미만)	11 pm
유치부(만3-4세)	11 pm
유초등(K-5)	11 pm

청소년 YOUTH (ED BLDG)	
중등부(6-8)	11 pm
고등부(9-12)	11 p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	---------------

제일유아원	10 am (T-F)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휴교합니다.)	

설교의 사역자 학교

주 일	1pm / 1:30pm
-----	--------------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 일	7 am
뉴욕 라디오 코리아 FM87.7(FM 87.7)	

주 일	9 a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9 p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십일조 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담임목사 김정호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1년반 전 시작되었을 때는 긴장과 불안이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교회도 '위드 코로나'를 말하며 열심히 잘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들도 보였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되면서 지치고 질려버리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통 위기의 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 인내로 견뎌내는데,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잘 이겨내고 어린이들과 노인층이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합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이 활발한데, 노인층은 감히 지내는 답답한 시간이 오래되면서 몸과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생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헌금이 줄어든 것은 말할 것 없지만 교인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들이 이제 표면화되곤 합니다.

며칠 전 목회실 회의에서 'Non-Doing'의 중요성을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 않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당황해서 허둥거리면 안되고 가만히 물의 흐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느끼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뭘 해내려고 하고 몸부림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내년 인선을 앞두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난 1년간 아무 일도 제대로 못했다는 자책감을 가지더군요. 아닙니다. 코로나 난리 판에 뭘 많이 할 수도 없었지만 때로 가만히 그 자리에 존재함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큰 바위는 가만히 있지만 그 주변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만해도 든든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비결로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보다 존재가 우선입니다. 존재에 따라 행위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생업의 어려움이 있으니 헌금 드리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 캐나다 토론토 연합교회 이상철 목사님은 직장을 잃거나 먹고 살기 어려워진 교인들에게 교회가 십일조 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설교를 해서 동네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러면 교회 망한다느니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 비난하고 그랬지만 그 어른의 마음은 교인들의 어려움을 교회가 잘 품어내지 못하는 것이 민망해서 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코로나 걱정되어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감염 걱정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40여년 전에 이상철 목사님을 모시고 시카고 아사원 자장면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식사기도하라 하시기에 진지하게 길게 했더니 "하나님이 의붓아버지도 아닌데, 왜 그리 절절하면서 고맙다고 여러번 말해."하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처럼 긴 아한 수염에 따뜻하고 인자함이 가득하셨던 어른이었습니다. 이목사님의 장인 김재준 목사님과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지 문재린목사님이 옛날 토론토 연합교회 계셨었습니다. 제게 부목사로 오라고 하셔서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은퇴를 하신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안간단 했더니 "아이고 아직 김목사 철이 없구나. 나 은퇴해도 예수님은 이 교회에 그대로 계신다."하시며 웃으셨습니다. 80년대만해도 만주별판에서 조국의 해방을 꿈꾸며 고난의 역사를 지켜냈던 어른들이 미국과 캐나다 북미주 이민교회를 이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웃것을 여미게 만드는 그런 큰 바위같은 어른들이 그림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고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억지스럽고 무리하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그분이 뜻하

시고 이루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주인되려고 하니 무리수를 두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내가 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능력주심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길 뿐입니다.

